# 태국서 불교·이슬람교 공존 마을 화제

**거주구 분리 않는 평등한 생활**
**불교식 이슬람 사원 조화 상징**
**최근 이슬람 개종 늘어나지만**
**지역 안정 유지 강한 결의보여**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도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사이카오 모스크. 사진출처=시사통신사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한 테러로 끊임없는 긴장이 이어지는 태국 남부에 불교도와 이슬람교도가 손을 잡고 사는 지역이 있다. 지난 12월 18일 일본의 '시사통신사' 등 외신들은 두 종교가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태국 남부의 모습을 보도했다.

태국 남부 파타니주. 말레이시아에 가까워 태국 최남단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인구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 태국에서 보기 드물게 이슬람교도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파타니주엔 오래전부터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이슬람 무장세력의 테러가 이어져오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 실제 파타니주의 많은 지구들은 불교도와 이슬람교도의 거주구가 나뉘어 분쟁사태의 발발을 막고 있다.

이 중 사이카오 지구는 최근 불교와 이슬람교가 함께 살아가는 모범적인 모습으로 꼽히고 있다. 태국 정부는 사이카오 지구에 대해 "두 개의 신앙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의 모범 지구'가 되는 지역사회"라며 평가하고, 다른 지구들에 대한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이카오 지구장인 아담은 "모두가 평등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된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사이카오 지구는 주민 4270명의 58%가 불교도, 42%가 무슬림으로 두 종교의 인구 비율이 거의 반반씩인 것도 이유로 꼽히지만 사이카오 지구는 다른 지구들과는 달리 거주구가 분리되지 않았다. 아담은 "두 종교가 섞여 서로 이웃하며 사는 것 역시 서로의 이해에 중요하다"며 거주구를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반목의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파타니주에서 종교 간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NGO를 이끄는 라마이 마나칸은 공존의 비결로 언어를 꼽았다. 태국 남부에서는 불교도가 태국어와 남부방언, 이슬람교도는 말레이어를 쓴다. 그런 사이카오 지구는 양 교도 모두 남부방언을 공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 사이카오 지구의 두 종교가 교류해 온 오랜 역사도 중요한 이유다. 지구 내 가장 오래된 이슬람 사원은 17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이슬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불교도가 설계하여 태국의 전통건축 양식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슬람교도들이 별다른 건축적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두 종교 간의 조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담 지구장은 두 종교간의 공존에 대해 "우리 지구를 다문화 사회 지구라고 부른다. 그러나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두 종교를 믿는 이들이 서로 다르다고 나누는 관점이라 생각해 달갑지 않다"고 이야기 했다. 아담은 "우리는 종교에 관계없이 장기간 공존해 온 사이카오 주민"이라며 함께 살아가는 한 지역 공동체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조화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슬람교도와 결혼한 불교도 대부분이 개종하면서 이슬람교도 비율이 서서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슬람 사원의 종교학교에 통학하는 이슬람교도의 아동도 증가하면서, 지역의 공용어인 남부방언을 대신하여 이슬람교도들의 공용어인 말레이어를 모어로 사용하고 있다. 한때는 거의 없었던 머리카락을 덮는 쓰개인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도 늘어나 이슬람화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아담 지구장은 "우리는 대대로 함께 해 온 사이카오 공동체, 분쟁을 원하는 외부세력으로부터 지역을 지키겠다"며 두 종교가 함께하는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결의를 내비쳤다.

# 日, 오사카에 사찰 품은 호텔 건립

**천년 고찰 미츠테라 사원**
**사찰의 새로운 접근 기대**


칸데오 호텔 오사카 신사이바시 호텔 투시도. 사진출처=칸데오 호텔

일본 오사카에서 사찰을 품을 호텔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돼 화제다. 구랍 16일 일본 주요 언론 '마이니치 신문'은 불교 사찰과 고층 호텔을 통합하는 재건축 프로젝트 소식을 전했다. 도시형 호텔 '칸데오 호텔즈 체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칸데오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는 오사카의 고찰, 미츠테라 사원을 새롭게 단장한 '칸데오 호텔 오시카 신사이바시' 건설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 호텔은 180개의 객실과 사우나, 노천탕 등을 갖춘 지상 15층, 지하3층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불교문화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최신 시설을 갖춘 숙박 공간이 융합되어 있는 곳이다.

2023년 11월 26일 개점을 예고한 '칸데오 호텔 오사카 신사이바시'는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여 미츠테라 사원을 그대로 품을 예정이다. 호텔 투숙객은 사원을 지나 호텔 로비에 진입할 수 있다. 미츠테라 사원에서는 아침예불, 명상, 사불(寫佛), 사경을 통한 수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칸데오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사의 데루아키 호즈미 사장은 "이곳은 호텔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지만, 불교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츠테라 사원 주지 카가 데츠로 스님은 "2020~21년 칸데오 호텔 예비 공사 때 사찰 보존을 위해 사찰 전체에 구조물을 올렸다. 사찰이 온전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호텔의 필로티와 지붕은 새로운 결계로써, 사찰의 새로운 접근법이 될 것"이라며 "부처님 위에서 머무는 것이 투숙객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프로젝트는 불자들의 불심을 강화하고 호텔을 방문하는 모든 투숙객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사카 주오구에 위치한 진언종 오무로파의 미츠테라 사원은 나라 시대인 744년에 15대 일왕의 유해를 안치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십일면관음을 모시고 있다. 본당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오사카 공습 때 파괴되지 않았고 1808년에 마지막으로 재건되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 日, 중노년 성적소수자 모이는 절

**주지스님은 60대 트랜스젠더**
**성적소수자 안식처 되길 바래**


절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쇼젠지의 성적소수자 신도들. 사진출처=NHK뉴스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담론과 대화가 불교계에서도 자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노년층의 성적소수자들이 모이는 사찰이 일본에서 화제다. 주지스님부터 트랜스젠더인 사찰, '쇼센지'에 대해 구랍 16일 일본의 'NHK 뉴스'가 특별보도했다

오사카 모리구치 지구에 소재한 성소수자들을 위한 사찰 '쇼센지(性善寺)'. 2019년 초 문을 연 쇼센지는 주지인 시바타니 소슈쿠 스님부터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스님은 "성소수자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찰,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사찰, 성소수자들의 경조사를 맡아줄 수 있는 사찰을 취지로 건립했다"면서 "예전의 자신과 같은 입장에 놓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쇼센지의 문을 연 계기를 전했다.

실제 스님은 출가 후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호적과 승적의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면서 종단 내에서도 큰 반발과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은사스님과 당시 총무원장 스님의 지지와 배려로 일본 진언종 역사상 최초 트랜스젠더 스님이 됐다.

스님은 지난 2017년 쇼센지의 설립을 공식발표하고, 속가의 별채를 개조하여 사찰을 세우려 했으나, 마침 오사카의 한 비구니 사찰이 빈 절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찰을 인수해 쇼센지로 다시 탈바꿈 했다. 스님은 사명에 대해 '다양한 젠더(性)는 선한 것(善)'이라는 신념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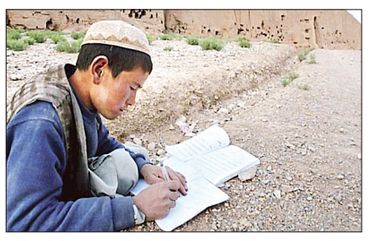
사찰 문을 열고나서 다양한 성적소수자들이 쇼센지에 모이기 시작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매달 2차례의 재일에 맞춰 법회를 봉행하고서 다 같이 식사를 하며 고민을 스님에게 상담하거나, 다른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응원해주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 특히 이곳 쇼센지는 중노년층 성적소수자들이 모여 신행활동을 함께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소슈쿠 스님은 "지금 젊은 성적소수자들은 비교적 커밍아웃에 대한 오해가 없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내 동년배의 중노년의 소수자들은 평생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나이가 있을수록, (커밍아웃) 할 수 없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며 사찰에 모이는 중노년 성적소수자들의 고충을 대변했다

50대 후반 성소수자 불자는 "이 절을 찾고서야 내 자신을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 오랜 세월 동안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도량"이라며 쇼센지가 주는 편안함을 이야기했다.

소슈쿠 스님은 "중노년의 성적소수자들은 대부분 가족에게 자신을 숨기고, 연인을 사귀지도 않은 채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떠나길 바란다"며 성적 소수자들의 마지막을 돌보는 절이 되겠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문화유산 약탈

**국제단체로 위장한 파키스탄 요원에 의해**


바미얀 불상 유적 근처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 사진출처=로이터

12월 17일 인도 '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은 파키스탄의 아프가니스탄 문화유산 약탈 소식을 전했다.

'아시아의 심장'으로도 불리는 아프가니스탄은 위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정치적 불안정과 내전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10세기 이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불교 유산이 대다수이며 이 문화유산은 잘랄라바드 석굴, 하이박 석굴, 바미얀 석굴 세 지역에 집중 분포 되어있다.

최근 바미얀 불교 유적지는 국제 협력 하에 활동하는 전문 기관들의 수치 복원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유네스코와 이탈리아 문화부는 바미얀에서 불상 복원 작업을 벌이고 있는 이탈리아의 문화유산단체 LaGeS(Laboratoria di Geografia Sociale)가 파키스탄 출신 요원의 불법 도굴로 인해 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밝혔다.

LaGes의 관계자는 "요원들은 언론인, 고고학자, 연구원, 유네스코, 유엔 등 국제단체 대표자로 위장하여 바미얀 불교 유적지 근처에서 일한다. 그들은 각자가 속한 지역의 고대 문화유산 현황을 파악하여 불법 도굴을 자행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의 페샤와르로 밀수해 회색시장에 판매한다"고 전했다.

LaGeS는 바미얀 불교 유적지 복원 프로젝트에 파키스탄 노동자의 고용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김민재 객원기자